

# 용봉지구 패션의 거리 특성화 '시동'

### 내년 2월까지 시장·상점가 지원 경쟁력 제고 마케팅교육·SNS홍보 등 상인 자생력 증진 역점

광주시 북구가 용봉지구 패션의 거리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인 '2019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 오

는 2020년 2월까지 용봉지구를 활력 넘치는 패션의 거리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봉지구 패션의 거리 특성화육성사업은 기초 역량을 갖춘 시장이나 상점가를 지원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편리한 결제 ▲고객서비스 향상 ▲고객신뢰 형성 등 3대 서비스 혁신과 ▲상인회 역량 제고 ▲안전환경 조성 등 2대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이달까지 희망 상인에 한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마친 후 제로페이 QR코드와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로페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금요일인 25일, 내달 1일, 8일 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또한 올해까지 점포 소개, 쇼핑 정보 안

내, 온라인 쇼핑물 등의 기능을 갖춘 쇼핑 홈페이지를 개발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패션의 거리 CI와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고객 확보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마케팅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SNS 홍보 등을 실시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자율방범소방대를 구성해 안전한 상점가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구는 침체된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3일까지 사은행사, 길거

리 패션쇼, 문화공연 등의 내용으로 '패션의 거리 가을축제 패션쇼'를 운영 중에 있다. 11월 중에는 상인과 지역 주민, 고객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인 '도란도란 행복 나눔 가족 걷기대회'도 진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성화 육성사업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의 거리가 고객이 다시 찾는 장소로 변화될기 바란다"며 "앞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특성화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패션의 거리를 북구의 대표적인 상점가로 부활시키고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패션의 거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첨단과학 골든벨 대회 신청접수

광주시 북구는 내달 9일 GIST 체육관에서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 골든벨 대회'를 연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100개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제2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GIST, 국립광주과학관,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한다. 대회는 초등학교 한 명과 부모 한 명이 한 팀을 이뤄 과학 관련 퀴즈를 푸는 방식이다. 문제출제 및 검수는 GIST에서 담당하고, 출제유형은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생활과학 상식을 다룬다. 북구는 참가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제1회 대회 기출문제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대회 2~3일전에 제2회 대회 맛보기 문제를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할 경우 북구경제종합지원센터로 전화(062-410-8483) 또는 이메일(kej111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 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최근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를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북구 단속 사각지대 업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저소득층 결혼·출생사건 지원

광주시 북구는 연 2회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결혼식과 출생사건촬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최근 메리지엔, 메이 크업전문가, 달콤패밀리포토, 레이나스튜디오 등 9개 기관·업체와 '저출산 극복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북구는 오는 31일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주민 3쌍의 '우리 두리 작은 결혼식'을 연다. 또 이달부터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엄마랑 아기랑 출생 축하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 일곡·우산·두암 3동 등 3곳 '동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생활권별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나선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동별 건강증진사업 모델 마련을 위해 3개의 시범 동을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동 맞춤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구 관내 동별 인구현황, 질병현황, 건강수준 등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생활권별 일반·건강현황 등을 분석해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대도시형 ▲노인밀집형 ▲취약지역형 등 3개로 유형화 했다. 일곡동, 우산동, 두암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주민 밀착형 건강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일곡동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여성인구가 더 많으며 대도시형 후군 발전율이 높은 대도시형으로 '여성 건강리더 양성', '건강나눔 DIY강좌', '우리동네 건강동아리' 등 여성 중심의 건강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건강리더를 발굴하고 건강한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우산동은 북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고 심뇌혈관질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노인밀집형으로 '백세튼튼 건강강좌',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 측정의 날'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영산강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북구 첨단 시민의 숲 인근을 둘러봤다. /북구청 제공

## 영산강변에 산책로 등 힐링공원 조성

### 생태교란종 제거 초화류·관목류 등 식재

광주시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영산강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영산강변은 지난 2008년에 조성된 산동고 친수공원을 중심으로 유채, 물억새, 코스모스, 습지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자생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게이트 볼장, 축구장 등의 체육·편의시설로 인해 시민들에게 각광

받는 여가 장소다. 북구는 이달 중 용전동 용산마을, 대촌동 드림비행연습장, 연제동 거장이 쉼터, 동림동 산동고 친수공원 일원 등 영산강변 주요 둔치의 지장수목과 생태 교란종(취녕꽃 등)을 제거하고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해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조성한다. 특히 포트 식재 보다는 종자를 파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테마별 군집식재를 통

해 영산강변을 찾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용산마을과 드림비행연습장 인근 산책로에 퍼즐과 벤치 등을 설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쉼터도 마련한다. 북구는 하천 경관 조성 후에도 제초, 솎아주기 등 지속적인 관리와 매년 다양한 초목을 식재해 영산강변을 북구의 대표적名片이 장소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광주시 북구가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생산성지수 측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2011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측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번 생산성 대상에서는 총 175개 지자체가 참여해 2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북구는 지역경제, 정주여건, 사회적 가치, 재정역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간헐골영화제 보러 오세요"

### 19일 중흥동 평화프라자서

광주 북구가 오는 19일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총회와 함께 제4회 간헐골영화제·대동문화마당 행사를 한다. 중흥2동 '간헐골영화제추진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가 주관해 열리는 마을영화제는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고 만든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에서는 최초로 추진됐고 4년째 이어가고 있다. '간헐골'은 지리적으로 광주 북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흥동 일대를 의미하는 옛 지명이다. 올해로 4번째 제작된 마을영화인 '기억 저편'은 중흥동에 재개발 바람이 불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자식들이 찾아온다 '는 내용을 담고있다. 독립영화감독인 윤수안 감독의 지도 아래 지난 6월부터 영화 기초이론, 연기 수업 등을 거쳐 약 1개월간의 촬영 끝에 완성됐다. 영화 행사 후에는 '간헐골 영화인 활동기록 사진전', '레드카펫 행진' 등 이벤트가 열리고, 배우와 감독이 전하는 '영화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도 진행된다. 영화제에 앞서 열리는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중흥2동 간헐골마을미래계획단이 선정한 ▲간헐골 영화 박물관 건립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10개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3가지의 제를 최종 선정한다. /이나라 기자

## 제10회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 대회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애민·애국정신과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남매일이 2010년 처음 마련한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는 올해도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나라사랑의 의미를 크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매일과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회개요	대 상	초등학교 재학생	중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제 목	- 남과 북은 하나 - 나는 대통령이다 - 내가 대통령 이라면	- 허니되는 대한민국 - 남북통일의 필요성 - 10년후의 한반도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통일 - 행동하는 양심 -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통일	
원고작성	원고지 5장 내외	원고지 7장 내외	원고지 9장 내외	
※ 위 주제중 백인에서 원고작성				
○ 접수기간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1월 22일 (11월 22일자 우편 소인 및 e-mail 유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peace20090818@daum.net * 우편 및 방문접수 : 광주 북구 재봉로 322(중흥동) 전남매일 (3F) 김대중정신계승글짓기 담당자 앞 062) 720-1011, 1017			
○ 시상자발표	* 카카오톡 접수 : jndnews			
○ 시상식	2019년 12월 9일 본사 홈페이지(www.jndn.com) 및 해당학교에 공지(발표일자는 변경 될 수 있음)			
○ 시상	12월 20일 예정(장소 추후공지)			
○ 시상	대 상_ 최우수상 _ 우수상 _ 장려상 _ 특별상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합니다